

#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

- 의사결정 과제를 중심으로-

서현석\*

## 〈 차례 〉

- I. 서론
- II. '협'의 개념
- III. 학생 소집단 대화의 특성과 과정
- IV.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
- V. 요약 및 결론

## I. 서론

문자 언어와 구별되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의 특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화 참여자들이 어떻게 공동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소집단 대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보편적인 개인 의사소통의 한 형식으로, 협력적인 문제 해결과 업무 추진 등 개인의 삶과 사회 관계적 생활에 있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집단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의 최선책을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비록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서로의 크고 작은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때, 대화 참여자들은 실제 소집단 대화에 직접

\* 한국교원대 초등국어교육 전공 겸임교수

참여함으로써 그 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협의'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대화 참여자 사이의 의견 조정 행위를 의미한다. '협의'는 특정 문화의 맥락에서 따라 매우 상이한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공동의 의미' 또한 서로 다르다. 문화는 개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접촉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한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또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자신이 속한 고유한 문화 안에서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란 특정 문화 안에서 해석되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을 구체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협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습자 사이의 소집단 대화의 특성과 과정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협의' 행동의 기본 범주를 설정하고 '협의' 유형을 탐색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직 미성숙한 발달 단계 과정에 있는 학습자, 교사와 학습 과제 그리고 교실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대화'의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더 나아가 학생 활동을 포함하는 교수·학습 내용의 수준을 설정하고, 그 과정을 계획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할 수 있다. 학습자 상호작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갖는 일은 효과적인 국어과 교수·학습의 과제 설계와 비계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 작업이 된다.

## II. '협의'의 개념

### 1. '협의'의 정의

일상의 대화에서 참여자 사이의 대립은 흔히 일어난다. 매대 대화의

예를 들어보면, 매매의 성립이라는 대화의 목적 하에 판매자는 최대한 물건의 가치를 높여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반면에 구매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받고 최대한 싼값을 지불하려 한다. 그래서 한 가지 물건을 두고, 파는 사람은 그 물건의 값어치가 높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사는 사람은 그 것은 싸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매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현재의 자신의 대화 목적만을 중시한다면, 그들의 상호작용은 곧 단절되기 쉽다. 그러나 이들이 '단골'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사이라면, 대화의 과정과 결과는 달라진다. 그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절하여 '물건 매매'라는 공동의 대화 목적을 달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대화의 목적을 이루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sup>1)</sup>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상호작용에 임한다. 하지만 때로, 자신의 경험이 타인과 달라 나타나는 차이가 발생하면 실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통 입장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조정하게 된다. 실생활에서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상충되어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많다. 꼭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교환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전하고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도 의사소통의 조정행위가 일어난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상호적 조정행위를 '협의(Verständigung : 協議)'의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하버마스(Habermas)는 '협의'를 말함에 있어, '이상적 담화 상황'을

- 1) 이때의 상호작용은 흔히 말하는 '홍정'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재래시장에서는 홍정하는 모습을 자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상거래 장소인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홍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합리성과 객관성의 면에서 '정찰제'라는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는 '단골'이라는 대면적 관계를 대신하여, 구매한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를 계산하여 '우수 고객'을 선정하고 일정 혜택을 부여한다.
- 2) '협의'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일방적 이해(Verstehen, Verstandnis)가 아니라 자기 뜻을 말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에 이르는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적 행위이다. 이는 서로 공조(供調)하기 위해 인식과 의미 협력적으로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이해나 'Verständigung'의 결과물인 '합의'로 번역하기에는 곤란한 단어이다. '협의'는 좀 더 협력적이고 진행되는 동사적 속성을 갖는다(황태연 역, 1997:36).

염두에 두었다.3)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그가 말하는 진정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가 말하는 '이상적 담화 상황'은 드물고, 다양한 상황의 의사소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합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대화의 전략과 현상들이 존재한다. 다음은 실제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대화로 그러한 예를 잘 나타내고 있다. <대화 자료 1>는 초등학교 국어과 수업 중 역할놀이 배역을 정하면서 생성된 학생 간 대화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조개'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의 내용을 근거하여, 조개 역할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 '희연'이 맡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과 그 역할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미래'의 의견이 대립을 이룬다.

<대화 자료 1>

미래 : 그 다음에 조개 남았거든! 조개 내가 할래.  
 용덕, 영범, 지효 : 조개는 강희연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래 : 영, 조개 내가 할 꺼야!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싫어, 싫어. 나 감독하기 싫어. 나 할래. 어-  
 영범 : 어! 있는데, 조개는 강희연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미래 : 싫어. 싫어. 나 할래, 나, 나 나 할래. 나 아무 것도 안한다. 나 감독하기 싫어-  
 영범 : 애 운다! 애 운다!  
 미래 : 내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3.0)  
 지효, 용덕 : 그러면 (미래가 조개하고) 감독은 강희연이 해!

— 2002. 12. K초등학교 6학년 수업상황, 학생대화(12세 남3명, 여2명)

3)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모든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답변하려는 개방성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하고, 토론 참가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속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토론의 상대자를 판단력 있고 성실한 주체로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 또한 대화에서 인종적 선입견이나 계급적 선입견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김재현, 1996:33).

대화 참여자 '미래'는 소집단 대화에서 주로 '선도자'와 '진행자'의 역할을 하며, 실제 인지적인 능력 면에서 다른 대화 참여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학생이다<sup>4)</sup>. 그러나 '미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역할의 비중이 크니, 어려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은 누구인가?)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는다. 오히려 울음과 고집을 피움으로 '이타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협'의는 처음부터 대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크고 작은 이견(異見)의 충돌에서 시작된다. 이 연구에서 '협'의는 의견의 합리성이나 타당성뿐만 아니라 그 의사소통의 다양한 상황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대화 참여자 사이의 의견 조정 활동을 의미한다.

## 2. 갈등, 논쟁, 협상 그리고 협의

상호간 의견조정과 관련하여 '협의'와 비교해 보아야 할 용어는 '갈등' (conflict : 葛藤)이다. 갈등이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상치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적어도 둘 이상의 개체들 사이에서 표출된 분쟁 행위"이다(Hocker & Wilmot, 1991). 이 정의에 의하면, 대화 상황에서 갈등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대화 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속성을 지닌다. 첫째, 갈등은 상호 의존 관계에서 일어난다. 상호 의존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즉, 그 관계 내의 당사자들은 일종의 공동 목표나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길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과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싸움일 뿐 갈등은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

4) 학생 소집단 대화의 역할 관계 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현석(2004:70-74)참조. 학생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사후에 담임교사와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성한다. 유교가 설정하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모두 상호 의존 관계이다. 이러한 기본적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갈등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상대방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상치되어 서로가 서로의 목적을 방해할 때 일어난다.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도구적 목적(instrumental goal)이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특정한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관계적 목적(identity goal)이란 상대방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상대방과 얼마나 친근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자신의 권위를 얼마나 세울 것인가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정체성 목적(identity goal)이란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갈등은 이 세 목적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서로 상충될 때 일어난다(이현우, 1995 : 169-170)<sup>5)</sup>.

‘협의’와 ‘갈등’은 서로 관계를 맺은 대화 참여자들이 이견(異見)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단어에서 연상되는 개념은 매우 다르다. 협의는 서로에 대한 이해 혹은 협력을 떠올리게 하는 반면, 갈등은 대치, 적의, 고통, 분쟁과 싸움을 생각하게 한다. 갈등은 인간관계의 신뢰감을 약화시키며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갈등 자체가 나빠서

5)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문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관계적 목적과 정체성의 목적을 중요시한다. 서양인이 의사소통의 도구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의사소통에 임한다면, 동양인은 이에 관계적 목적과 정체성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동양인은 하나의 의사소통 목적에 관련되는 많은 변인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오해와 갈등이 더 빈번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또 다른 속성인 ‘표출된 행위’라는 면에서는 반대의 경향이다. 예를 들어, 유교 사상의 강한 영향력을 받는 우리 문화에서 상대방과 대립되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덮어두고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서로의 의견이 상치되고 불만이 있을지라도 이를 마음에 담아둘 뿐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기보다 갈등을 처리하는 해결 방법이 미숙했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면, 갈등은 '협'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갈등은 주어진 관계 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협'의는 '논쟁'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을 갖고 있다. '논쟁(dispute : 論爭)'은 '보다 나은 상호 이해에 도달'이라는 점에서 '협'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래 글에서 잘 드러나듯이, '논쟁'이란 용어는 본래 토론과 관련된 것으로 다툼과 논리적 대립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말이나 주장에 다툼, 즉 논쟁을 의미한다. ...논쟁의 목적은 곧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잘 알고 따를 수 있는 추종(adherence)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의 한 적용 사례인 토론은 결국 기본적으로는 논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논쟁의 당사자가 형식화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환열, 2000: 31-32)

'논쟁'에서 입론자는 자신의 주장이 논쟁을 벌일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입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참여자들은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다(유동엽, 2004: 83). 논쟁은 토론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로 다른 입장을 이미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이다. 또한, 쟁점이 될 만한 논제가 있어야 하며, 여러 번의 순서를 걸쳐 이루어진다는 형식이 필요하다.

박경현(2001: 287-288)에서 살펴보면 논쟁은 토론과 관련이 깊으며,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논리와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말하기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토의는 서로 협력하여 대답이나 회의를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는 화법이고, 토론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해답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려는 화법이다.

② 토의는 일종의 집단 사고의 일종이고, 토론은 이미 의견 대립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다음의 발전을 찾아내려는 변증법적 사고이다.

③ 토의는 자유로이 논의하는 것이지만, 토론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하는 논쟁이다.

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토의는 흥금을 터놓지 않는 한 진정한 합의를 얻기 힘들다. 그러나 토론은 흥금을 트든 안 트든 관계가 없다. 오직 통하는 것은 사실과 논리뿐이며, 흥정이나 정실이 통하지 않는 과학적 화법이다.

‘논쟁’은 논리성을 강조하고 대화 참여자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대립함을 전제로 하며, 쟁점이 될 만한 논제가 있어야 시작된다는 점에서 ‘협의’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논쟁’의 개념으로 일상 대화에서 벌어지는 의견 조정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들’ 관계나 ‘장인어른’과 ‘사위’ 사이의 대화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사실과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아들’과 ‘사위’는 ‘어머니’와 ‘장인어른’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기 때문이다. ‘논쟁’의에서 강조하는 논리와 합리성을 넘어선 대화의 원리가 우리의 고유한 문화 안에서 형성된 상호적 관계 혹은 의사소통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채 존재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과 견주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용어는 ‘협상’이다. 일반적으로 협상(negotiation : 協商)은 타협을 전제로 하며 최선의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정의된다. 협상은 다양한 거래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며, 주로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사용해 왔던 말이다. 이달곤(1996)은 “협상이란 공통적이면서도 상반되는 이익의 조합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개인이나 조직, 국가가 명시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나 행태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정현숙(2002: 256-257)은 협상을 “의견 대립이나 이해 상충 같은 갈등들이 생겼을 시 타협을 전제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토의해 가는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보다 폭넓게 정의하였다. 협상은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여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의 추구(win-lose)가 아닌 상호만족(win-win)을 목표로 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협의’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입장

의 공유보다는 타협을 전제로 하는 좀 더 공식적 상황이나 거래에 적합한 말로 여겨진다.<sup>6)</sup> 협상에서는 대내외적인 명분이나 실익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의 조정 행위가 벌어질 것이다.

요컨대, '협'을 통해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한다. 논리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논쟁'과 달리 '협'에는 상황과 관계를 고려하는 대화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협'은 자신의 의견, 생각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삶과 깊이 관련이 있으며, 매일 벌어지는 대화에서 사람들은 수없이 다양한 '협'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의 대화 목적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을 습득한다. 만약, 원래 대화의 목적 그대로를 고수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는다면, '협'의 과정은 원만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 서로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 III. 학생 소집단 대화의 특성과 과정

#### 1. 학생 소집단 대화의 특성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구성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소집단 의사소통, 또는 집단 의사소통으로 본다. 그러나 집단 의사소통의 특징은 구성원 수에 있기보다는 대면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집단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 있다.<sup>7)</sup> 대인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6) '노사 임금 협상', 한미 협상등이 그 예이다.

7) 다음과 같은 Baker, Cegala, Wahlers(1979: 11)의 소집단 정의는 이런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소집단은 수적인 면에서 볼 때, 3명에서 15명 사이의 개별 인간들의 모임체인데, 오랜 시간을 두고 대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혹은 잠재적인 지도자가 있으며, 적어도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

소집단 의사소통과 두 사람 단위의 의사소통은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둘은 차이가 있다. 한 쌍의 의사소통은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의 조화를 다루지만, 소집단은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조화를 다룬다. 더욱이 소집단 구성원들은 대개 마음속에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인다.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은 1대1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상호작용의 유형이 좀 더 복잡하다(임철성 역, 1997: 280-281)

일상생활에서 소집단 대화는 흔히 일어난다. 직장 안에서 행하는 회의나 토의, 친목을 도모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담소뿐 아니라, 가족·이웃·친구와의 의사소통 등은 대부분 소집단 대화이다. 이런 소집단 대화에는 계획적으로 준비된 연설이나 토론과는 다른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임철성(2001: 60-61)은 구두 의사소통을 준비된 말하기와 즉석 말하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눈바 있다. 여기서 준비된 말하기란 화자 한사람이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현재 우리 교과서의 말하기·듣기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하기이다. 반면에 즉석 말하기는 주로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제가 미리 주어지지 않거나, 대화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해 가는 말하기이다.

소집단 대화와 토론은 모두 앞에서 말한 '즉석 말하기'에 포함되나, 이 두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 양상은 서로 차이가 있다. 토론의 경우 대화 참여자의 역할, 순서 교대(찬성과 반대 측의 교체)나 대화 전개 순서(입론에서 논박, 최종 변론) 등이 정해져 있는 반면, 소집단 대화의 경우는 대화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암묵적이며, 소집단 대화의 진행, 참여자 역할과 순서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난다.<sup>8)</sup> 토론의 경우는 대화 순서와 대화 참여자의 역할 등이 일정한 방식으로 정해지지만, 소집

8) 자세한 내용은 서현석(2004:73)을 참고. 2인 대화에서는 발화의 직접적 수용자와 발화를 듣는 사람이 언제나 동일한 데 비해서, 집단대화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발화의 모든 직접 수용자와 들을이가 동일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구분될 수도 있다. 소집단 대화와 대집단 대화의 차이점은 대집단 대화의 경우 언제나 대화 진행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박용익, 2001: 177).

단 대화에서는 누가 먼저 대화를 개시할지, 그에 대한 반응은 누가 하게 될지 또 대화의 진행을 누가 주도할지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소집단 대화의 참여자는 좀 더 능동적이어야 하며, 즉각적인 상황 인식과 대화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언어 처리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학습 소집단에서 생성되는 대화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sup>9)</sup> 학습 소집단 대화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학습 과제 해결이라는 대화의 목적을 추구하며, 상호 교섭적 의사소통을 통한 이차적인 교육적 목적도 이루어 간다.<sup>10)</sup>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 의해 주어진 '학습 과제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목적을 주목하고 대화에 임하게 된다.

학생 소집단 대화에는 학습 과제를 둘러싼 학습자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라는 특수한 상황 맥락이 존재한다. 학생 소집단 대화는 주어지는 학습 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대안 중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 과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 때의 의사소통은 과제 중심적 대화로, 그 안에는 서로의 이해와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가는 과정이 존재하게 된다. 다음은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 소집단 대화의 학습 과제이다.<sup>11)</sup>

9) Jones, Barnlund, Haiman(1980)은 집단을 일상, 정화, 학습, 정책 결정, 행동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학습 집단은 보통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화 참여자들은 새로운 지식에 동화되도록 서로 돕는다. 이 연구에서 '학생 소집단 대화'와 '학습자 소집단 대화'는 '학습 소집단에서 생성되는 대화를 의미하며,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10) 이차적인 교육적 목적이란, 학습 목표 외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의사소통에 참여하거나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를 말한다.

11) 학습 과제 1)과 관련한 소집단 대화는 2002년 12월 K초등학교 6학년 한개 학급의 말하기·듣기 수업에서 생성된 것이다. 학급 전체 35명의 학생들은 6개의 소집단으로 나뉘어 약 1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연구자는 몇 주 전부터 사전 수업 관찰을 하였으며, 각각의 집단에 보이스 레코더를 미리 비치하여 녹음하고, 이중 3개 소집단의 실제 대화를 선택하여 녹취하였다. 학습 과제 2)는 2003년 4월 M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의 소집단 대화 내용이다.

- 1)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정하기
- 2) 급식실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정하기

의사결정을 위한 학생 소집단 대화의 참여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학급 동료이며, 대화 참여를 위해 특별한 사전 준비는 하지 않았다. 대화의 과제는 수업의 목표와 관련하여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정하였다. 대화는 참여자를 둘러싼 고유한 상황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학생들은 동료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비교하고 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2. 학생 소집단 대화의 과정

소집단 대화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피셔(Fisher, 1970: 53-66)는 4-12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10개의 집단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을 분석한 바 있다<sup>12)</sup>. 그는 여덟 가지 언어적 행동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이것을 다시 전후 말과 조합을 이루는 말들과 연결시킨 결과 소집단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연속적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대화 참여자 간의 '협'의는 '갈등'과 '출현'의 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학습자는 소집단 대화의 경험을 통해, 가정이 아닌 학습 동료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교실 의사소통을 시작한다.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 사이에 수행되는 대화와 다르며, 학교에서 교사와 나누는 대화와도 다르다. 동료 사이의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된다.<sup>13)</sup>

---

12) 그 여덟 가지 유형은 우호적 해석, 비우호적 해석, 모호한 해석, 호의적 구체화, 비호의적 구체화, 모호한 구체화, 설명, 동의 등이다.

13) 평등대화의 특징은 대화 참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불평등대화에서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차이점은 여러 원인에

[표 1] 소집단 의사결정 과정

단 계	특 징
적응 (orientation) ↓	설명과 동의의 말들이 많이 행해지는 단계. 광범위한 내용과 모호한 진술에 대해서도 동의를 나타냄. 비호의적인 반응이 비교적 적음.
갈등 (conflict) ↓	모호한 의견이 줄어들고 확실한 반응이 증가하는 단계. 호의적-비호의적 의견의 대립이 주된 양상. 다른 어느 단계보다 비호의적인 반응이 더 많음.
출현 (emergence) ↓	호의적 의견과 모호한 의견 간의 갈등. 비호의적인 말들은 적은 대신 모호한 말로 반대이사 대변. 마지막에 가서 만장일치에 도달.
보강 (reinforcement)	집단의 결속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단계.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최종결정에 따르게 됨.

학생 소집단 대화의 과정은 시작(적응) 단계, 의견을 말하고 결정하는 중심 단계 그리고 의견 수용의 종결(보강)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피셔가 말한 '갈등'과 '출현'의 단계는 소집단 대화의 중심부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 학생의 소집단 대화의 과정은 '시작부-중심부-종결부'라는 일반적인 대화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화 예시 2>는 학생 소집단 대화의 시작부이다. 시작부는 교사에 의해 주어진 문제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대화 예시 2 : 소집단 대화의 시작부>

선미 : 음... 뭐지? 음... 급식소(1.0) (?) 가장 좋은 방안... 몇 가지?

(교사가 판서한 학습 과제를 쳐다보며)

의한다. 인류학적 원인은 가랑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성인과 어린이 관계 등에서 나타난다. 사회문화적 원인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규정된 역할에서 오는 권력의 불균형과 관계가 있고, 전문 지식적 원인은 전문성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지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구조적 원인으로서는 인터뷰나 질의 등과 같이 대화 진행에서 주도권의 차이점과 관련이 있다(박용익, 2001 : 178).

윤연 : 한 가지.

선미 : 한 가지?

윤연 : 응.

대화의 중심부에서 학생 소집단 대화 참여자들은 과제 해결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한다. <대화 예시 3>는 '은지'의 제안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의견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처럼 소집단 대화의 중심부는 의사 결정에 관한 다양한 협의의 양상이 존재한다. 학생 소집단 대화의 중심부는 '협의' 양상을 연구하는데 주된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대화 예시 3 : 소집단 대화의 중심부>

은지 : 아니면, 줄을 설 때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앉아있을 때도 여자 남자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앉아도 되잖아. 여자 남자 번갈아가면서.

은별 : 만약에 더 시끄럽지 않을까?

다솜 : 만약에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

은지 :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왜 싸움이 나?(2.0) 왜? 그 애들이 말 안 하면 되는데.

선이 : 이걸 다른 반들이 적용하기에는 힘들지.

마지막 종결부는 중심부에서 이루어진 '협의'의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대화 예시 4>는 앞에서 이루어진 '협의'의 결과를 정리하고 모든 대화 참여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대화의 종결부이다.

<대화 예시 4 : 학습 소집단 대화의 종결부>

예슬 : 그림 비닐 봉투 쓰지 않고 장비구니 쓰기랑 먹을 만큼 음식 만들기 하자!

혜성 : 그래 이거 두 개 하자!

상진 : 이걸로 정하는 거지?

유리 : 응!

진우 : 그러자.

학생 소집단 대화의 과정은 크게 '시작부-중심부-종결부'로 나눌 수 있다. 시작부는 교사에 의해 주어진 문제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준비하는 기능을 갖으며, 중심부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제안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종결부는 의사결정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다. 학생 소집단 대화 참여자들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식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협의'한다.

## IV.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

### 1.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습자들이 수업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에 이르는 상호작용 과정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의 범주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을 유형화하기로 한다.<sup>14)</sup>

#### ■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

- |                  |                           |
|------------------|---------------------------|
| 1. 전개(expansion) | 2. 응대(response)           |
| 3. 강조(emphasize) | 4. 무관한 행동(irrelevant act) |

첫 번째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는 전개(expansion)이다. 전개는 진행되는 대화에 정보를 제시하거나 더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

14)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는 Goncu(1993)의 상호주관성 측정을 위한 도구를 참고 하였다. '협의' 양상에는 시선, 몸짓, 침묵 등 비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이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하려는 행동이다. 전개는 '협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 학습 소집단의 대화 참여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앞선 발화자의 의견을 보충함으로 대화 연속체 구성해 간다. 전개에 포함되는 하위 유형으로는 도입, 확장, 추가를 들 수 있다.

도입(introduction)은 협의를 위한 시작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확장(extension)은 앞 차례에서 표현된 상대 의견에 새 정보를 더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에 정보를 더하는 추가(building-on)와 구별된다. 초등학생의 소집단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개' 행동 범주에 해당되는 대화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전개 범주와 대화 예시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		대화 예시
전개 (expansion)	도입 (introduction)	아람 : 그러니까 그건 일단 빼놓고 다른 것 생각해 보자. 민기 : 음식 먹을 만큼 만들기 좋을까? (2.0)
	확장 (extension)	지나 : 몽땅 연필로 쓸 수도 있잖아! 세종 : 볼펜 뚜껑으로.
	추가 (building-on)	세종 : 어! 종이컵 안 쓰면 되잖아. (그리고?) 세종 : 나무젓가락으로 안 먹으면 되고 (2.0) 그 다음에(1.0)

도입은 '협의'의 출발을 의미하나 도입 행동만이 반복된다면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확장 행동의 경우는 다른 대화 참여자의 관심과 참여 속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추가는 화자가 자신의 의견에 정보를 더함으로 청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끌어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추가 행동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다<sup>15)</sup>.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의 둘째 범주는 응대(response)이다. 응대는 상대의 생각에 수긍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행동이며 수용, 거부, 수정, 회유 등을 포함한다. 수용(acceptance)은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상대의 제안에 긍정의 대답을 함으로써 동의를 명백하게 표현하거나, 상대의 발화에 흥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부(rejection)은 상대의 의견을 명백히 반대하거나 반응을 표현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이다. 수정(revision)은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는 행동으로 거부와 수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며, 회유(conciliation)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명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도의 행동이다.

[표 3] 응대 범주와 대화 예시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		대화 예시
응대 (response)	수용 (acceptance)	재원 : 종이를 만들 때(1.0) 나무 함부로 베잖아. 지나 : 맞아!
	거부 (rejection)	희연 : 자연 에너지 쓰는 거? 지나 : 그건 아직 실용화가 안 되었잖아
	수정 (revision)	세종 :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자? 재원 : 그러기보다 쓰레기를 많이 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회유 (conciliation)	민기 : 가까운 거리 걸어가는 건 실현도 가능하고 운동도 되고 좋다. 명섭 : 솔직히 우리 운동 겸 걸어 다니기도 하잖아.

응대는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의 핵심을 이루며,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 혹은 전략의 모색이 가능한 행동 범주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대화 자료에서 살펴보면, 학생 소집단 대화의 응대 유형에는 수용과

15) 이와 관련한 연구로 유은경(2003), '초등학교 대화 교육을 위한 청자의 역할지도 방안 연구'가 있다.

거부 행동이 주를 이루며, 수정과 회유 행동은 비교적 드물다. 특히, 거부 행동에서 초등학생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바로 반박하거나 침묵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능숙한 대화 참여자라면 서로의 관계 요인을 포함한 '협의'의 총체적인 맥락을 반영하여 수정이나 회유의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을 좀 더 신중히 선택하였을 것이다.

[표 4] 강조 범주와 대화 예시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	대화 예시
강조(emphasize)	상진 : 방법이 어려우면 안돼. 예슬 : 너네 시끄러워. 혜성 : 시끄러워, 너네! 상진 : 방법이 어려우면 안 된다고.

세 번째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는 강조(emphasize)로 자신의 발화를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경우이다.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이 이전에 발화한 내용의 전부나 일부분을 반복한다. 위 [표 4]의 대화 예시는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관련 없는 반응을 보이자 자신의 발화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무관한 행동 범주와 대화 예시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	대화 예시
무관한 행동 (irrelevant act)	상진 : 방법이 할 만한 거. 진우 : 여기는 엠비씨입니다. 예슬 : 하지마-

네 번째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의 범주는 무관한 행동(irrelevant act)으로 앞에 제시된 의견과 관계가 없으며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상관없는 행동은 상호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발화

가 많다. 무관한 행동은 주로 셋째 유형인 강조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즉, 다른 대화 참여자의 무관한 행동이 나타날 때,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게 된다.

## 2. 학생 소집단 대화 '협의' 유형

'협의'는 자신의 의도나 의견, 생각 등을 밝힘으로 시작된다. 소집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대화 참여자는 도입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제안일지라도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에 도입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대화 참여자의 도입으로 수용, 거부, 수정, 회유 등의 다양한 응대가 이어질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협의' 행동은 '도입과 수용'의 인접쌍이다. 그러나 일반 대화와 달리 학생 소집단 대화는 적어도 3명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존재하고 학습 과제를 중심으로 한 수업 상황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번의 순서 교대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소집단 대화에서는 2인 대화나 토론처럼 'A→B→A→B'의 차례와 같은 질서 있는 순서 교대가 일어나지 않으며, 대화 진행의 방향이나 참여자 역할 변화도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소집단 대화는 누가 대화를 시작할지, 그에 대한 반응은 누가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협의' 행동 범주를 기준으로 학생 소집단 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특징적인 '협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 1) 앞사람 따라하기(pattern of follow : 同調形)

'앞사람 따라하기'는 수용에 대한 같은 종류의 응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협의 유형이다. 학생 소집단 대화에서 여러 대화 참여자의 응대가 일어나는데, 이들의 반응은 바로 앞선 발화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즉, 앞선 발화자의 응대 행동이 거부였다면 거부행동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아래 <대화 예시 5-(1)>는 도입에 대한 여러 대화 참여자의 수용이 반복되어 '협의'가 매우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대화 예시 5 : '앞사람 따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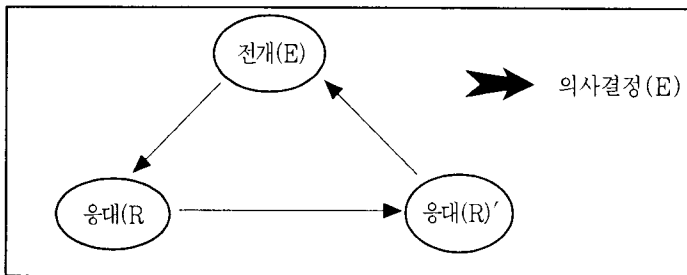
(1)

- |                                  |       |
|----------------------------------|-------|
| 유리 : 물 받아쓰는 거.                   | (도입)  |
| 혜성 :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 (수용1) |
| 상진 : 무엇보다 내가 쓸 수 있는 거니까!         | (수용2) |
| 예슬 : 그럼 이거 하나하고(1.0) ... (생략)... | (수용3) |

(2)

- |                       |       |
|-----------------------|-------|
| 성현 : 녹색 댐 만들기!        | (도입)  |
| 유리 : 시간이 많이 걸려.       | (거부1) |
| 혜성 : 맞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 (거부2) |

한편, <대화 예시 5-(2)>의 경우는 도입에 대한 거부가 이어져 첫 번째 대화 참여자의 의견은 무시된다. <대화 예시 5-(1),(2)>처럼 한 대화 참여자의 도입에 대한 여타 다른 대화 참여자들의 동일한 응대 행동이 반복적으로 뒤따르는 '협의' 양상을 '앞사람 따라하기'라 칭한다. 학생 소집단 대화에서 바로 앞에 선행하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에 뜻에 동조하는 '앞사람 따라하기' 유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사람 따라하기'의 협의 양상을 그림으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 '앞사람 따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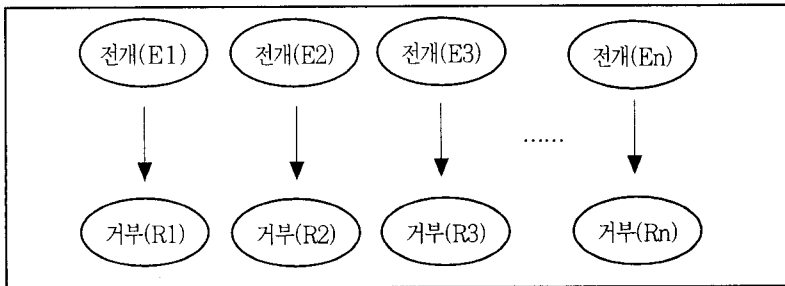
2) 말 자르기 (pattern of extinction : 斷絶形)

앞선 대화참여자의 의견에 대한 거부가 있고, 이어서 또 다른 의견 제시에 대한 거부가 이어지는 '협'의 유형은 '말 자르기'이다. 다시 말해, 처음 대화 참여자의 도입이 수용이나 수정, 회유 등의 다른 응대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이다. 아래 <대화 예시 6>에서 살펴보면, 처음 의견을 제시한 대화 참여자는 자신의 발화에 추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것들을 대화 참여자가 함께 걸러내는 협력적인 의미 공유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대화 예시 6 : '말 자르기'>

- |                         |       |
|-------------------------|-------|
| 예슬 : 자연 에너지 쓰는 거?       | (제안1) |
| 상진 : 그건 아직 실용화가 안 되었잖아. | (거부1) |
| 예슬 : 콘크리트 재사용은?         | (제안2) |
| 상진 : 그것도 애매모호해.         | (거부2) |
| 성현 : 녹색 댐 만들기!          | (제안3) |
| 유리 : 시간이 많이 걸려.         | (거부3) |

<대화 예시 6>은 '예슬'과 '성현'의 제안에 대해 '상진'과 '유리'의 거부가 계속 이어져 '말 자르기'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명의 대화 참여자에 의해 수행되는 '말 자르기'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림 2 : '말 자르기'>

〈그림 2〉처럼 ‘말 자르기’유형은 한 번의 도입에 한 번의 거부가 반복 되어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이다. 만약 한 사람의 제안에 대하여 계속적인 거부로 나타나면, 처음 도입 행동을 한 대화 참여자의 체면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이럴 경우 대화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악화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길고 어려워진다.

### 3) 의견 바꾸기 (pattern of alteration : 變更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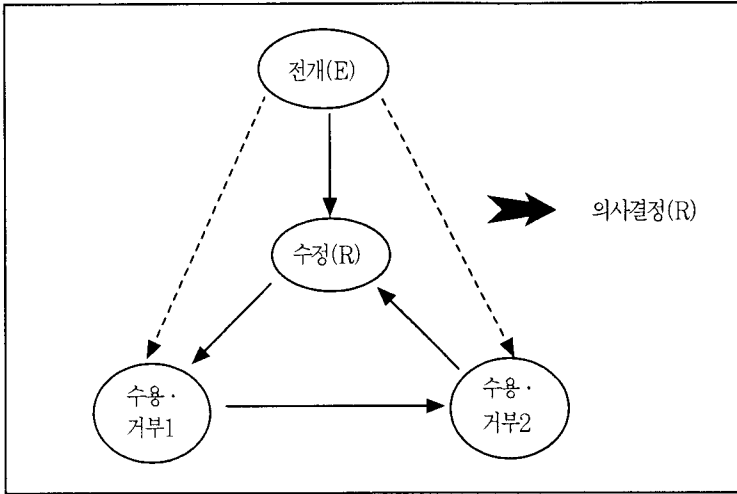
수정은 선행된 대화 참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과 다른 의견을 동시에 표현하는 ‘협’의 행동 범주이다. ‘의견 바꾸기’는 이러한 수정 행동을 포함하는 협의의 양상이다.

#### 〈대화 예시 7 : ‘의견 바꾸기’〉

세종 :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자?	(도입)
재원 : 그러기보다 쓰레기를 많이 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쓰레기통을 누가 설치해줘?	(수정)
지나 : 아- 그것도 맞는 말이다.	(수용1)
세종 : 그럼, 쓰레기통은 아니네.	(수용2) → 의사결정(도입포기, 수정채택)

〈대화 예시 7〉은 ‘쓰레기통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조정하여 ‘쓰레기를 많이 줌’으로 수정하고, 이 수정된 제안을 대화 참여자들이 수용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 첫 번째 도입 행동을 한 대화 참여자는 수용2에 나타나듯, 자신의 의견을 매우 자연스럽게 포기한다. 앞선 발화자의 의견에 이의를 제시할 경우, 서로가 수긍하는 범위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협의’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나 이유를 들어가며 이의를 표하여야 하며, 다른 대화 참여자들의 수용을 받아야만 한다. 학생 소집단 대화 참여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조정하고 과제 해결점을 탐색해 나간다. 이러한 대화 경험은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하게 하고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상호 주관성 형성

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은 '의견 바꾸기'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3 : '의견 바꾸기' >

## V. 요약 및 결론

학습자는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통해 공동의 의미 구성 과정을 경험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총체적인 언어 수행 능력을 획득해 간다. 이 점에서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국어 수업의 구조와 국어과 교재 구성을 계획할 때 학습자의 언어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습자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어 수업 현상을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 수행은 있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송환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에서 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 소집단 대화를 분석하였다. '협의'는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조정 행위이다.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은 '전개, 응대, 강조, 무관한 행동'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를 기준으로 학생 소집단 대화를 분석한 결과 '앞사람 따라하기', '말 자르기', '의견 바꾸기' 등의 '협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말하기·듣기 학습자는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과 타자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교사는 이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자의 실제 국어사용의 능력을 자극하고 신장시키며, 그 과정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 소집단 대화의 분석과 지도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

\* 본 논문은 2005. 2. 25 투고되었으며, 2005.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5. 3.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명순(2000), "협동학습의 국어 교육적 의의", 『한국어문교육』 9,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_\_\_\_\_ (2003), "국어과 교육에서 활동에 대한 이해", 국어교육학회 제23회 학술발표대회.
- 김우룡(1993), 『커뮤니케이션 기본 이론』, 나남출판.
- 김정탁(2003), 『한국인의 의사소통 사상을 찾아서 禮 & 藝』, 한울 아카데미.
- 김환열(2000), 『TV토론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은희(1999), "대화의 특성과 지도 방법", 『텍스트 언어학』 7, 텍스트 언어학회.
- 박용익 (2001), 『대화분석』, 도서출판 역락.
- 서 혁(2001), "말하기 교육 및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어수업방법』 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서현석(2001), "말하기·듣기 수업의 비계설정 양상", 『국어수업방법』 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학생 소집단 대화의 구조와 전략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 신헌재 외(2003),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기획총서 2, 박이정.
- 엄정애(2002), "놀잇감의 구조성이 사회적 극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상호주관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 유동엽(2004), "논쟁의 불일치 조정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유은경(2003), "초등학교 대화 교육을 위한 청자의 역할지도 방안 연구", 청주교대 석사학위논문.
- 이달곤(1996), 『협상론 :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법문사.
- 이병진 편역(1998), 『초등교육원리』, 문음사.
- 이현우(1995),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갈등 대응 전략", 『정, 체면, 연출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 관계』, 한나래.
- 이창덕 (2003), "음성언어 생태와 듣기·말하기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22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창덕·심영택·원진숙·임철성(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임철성 역(1997), 『대인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 \_\_\_\_\_ (2001), "교육 토론의 모형과 의의", 『국어수업방법』 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정현숙(2001), "언어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한국인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2),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본 한국적 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 문제점", 『스파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금호(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나남출판.
- 리처드 니스벳 지음, 최인철 역(2004),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 생각의 지도』, 김영사.

- 홍용희 역(2001), 『어린이들의 사회적 능력 배양: 교사의 역할』, 양서원. Lilian G. Katz & Diane E. McClellan(1997), For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 황태연 역(1997),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나남출판. Jürgen Habermas (1991),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 Handeln 4the, Frankfurt am Main.
- Baker, L.L., Cegala, D.J., Kibler, R. J., & Wahlers, K. J. (1979), Groups in process: An introduction to small group communi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rry, J. W.(2000), "Cross-cultural psychology: A Symbiosis of cultural and comparative approach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 Fisher, B. A (1970), "Decision emergence : Phases in group decision making", Speech Monographs, 37: 53-66.
- Goncu, A.(1993), "Development of intersubjectivity in the dyadic play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 99-116.
- Hocker, J.L. & Wilmot, W. W.(1991), Interpersonal conflict, Dubuque, Iowa: William C. Brown.
- Jones, S. E., Barnlund, D. C., & Haiman, F. S.(1980), The dynamics of discussion : Communication in small groups, New York: Harper & Low.
- Wertsch, J.(1985), Vygotsky and The social formation of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Wilson S. R. & Putnam, L.L(1990), "Interaction goals in negotiation", in J. Anderson (ed), Communication Yearbook 13.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초록>

##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 연구

- 의사결정 과제를 중심으로 -

서현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수·학습의 상황 맥락에서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협의'는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조정 행위이다. '협의'에는 논리와 합리성보다 상황과 관계를 고려하는 대화의 원리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협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은 '진개, 응대, 강조, 무관한 행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학생 소집단 대화를 분석한 결과 '앞사람 따라하기', '말 자르기', '의견 바꾸기' 등의 '협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말하기·듣기 학습자는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과 타자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교사는 이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자의 실제 국어사용의 능력을 자극하고 신장시키며, 그 과정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 소집단 대화의 분석과 지도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핵심어】** 학생 소집단 대화, '협의', 의사결정, 학습 과제, 상호적 의사소통 행동 범주, '협의' 유형

〈Abstract〉

## An Aspect of the 'Verständigung' in Small Group Conversation of Speaking · Listening Classes

Seo, Hyun-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body transactional conversation between learners in Speaking · Listening teaching situation. 'Verständigung' means the process of mediating decisions that is made between interdependence relationships. There are some maxim, considered situation and relationship above logicity and rationality in 'Verständigung'. In this study, the category of transactional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Verständigung' are classified 'Expansion, Response, Emphasize, Irrelevant ac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ypes of 'Verständigung' in small group conversation of student, 'pattern of follow', 'pattern of extinction', 'pattern of alteration' are established.

The learner of Speaking · Listening Class should have experience that mediate decision each other in transactional conversation. And take part in 'Verständigung' positively. More and more small group conversation of Speaking · Listening Classes are analyzed in many quarters.

**[key word]** small group conversation, 'Verständigung', decision-making, the category of transactional communication, types of 'Verständigung'